열 린 마 당

무너진 인륜, 부처님 법으로 다시 세우자

임 연 태 기자

최근 우리사회는 말로 형언 못할 반인륜적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존파 사건이후 택시강도, 보복살인등이 연일 세상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온갖 범죄가 판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무엇이 이 사회를 이토록 황량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들 삶의 현장은 언제까지 범죄의 그늘에 덮혀 있어야 하는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하고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범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때다.

우리 사회가 범죄의 그늘에 뒤덮힌 것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산업화의 일로에서 이룩된 경제 성장은 그만큼 정신문화를 황폐화 시켜 왔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신문화의 황폐화는 인륜과 가치관의 부재로 이어지고 거기서 엽기적 사건들이 독버섯 처럼 자생된 것이라는게 사회학자들의 지적이다.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문화 빈곤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는 그 토양이 척박하기만하다. 온갖 매스미디어들은 폭력과 파괴로 얼룩진 영상, 인쇄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문화에 대한 여과 없는 수용도 위험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이런 내부적 요건들을 우려하는 소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때마다 우려와 경악의 탄성만 연발하고 다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관습화 되고 있다.

「범죄 불감증」.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한 순간적인 경악만 있을뿐 근원적인 치유책은 없는 메마른 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우리사회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정치 권력층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수차례 거론돼 왔다. 반공, 조국근대화, 정의사회구현, 보통 사람의 시대,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정권들의 모토들이 얼마나 국민 생활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그 주된 내용이다.

정치 권력이 내세운 일련의 모토들은 집권층의 정통성 강조와 보여주기식 정치 구호로 흘러서는 안될 중요한 이념들이다. 그 지도 이념들이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들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뿌리내린 인간상실의 생채기들은 오늘의 생명경시 풍조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지적이고 보면 총체적인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당위성도 확보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정신없이 달려 왔다. 그 질주 속에서 우리는 얻은 것만큼 잃었다. 물질적 풍요를 얻었고 정신적 풍요는 잃었다는 것이다.

정신문화의 빈곤이 가져 온 가치관의 몰락과 도덕성의 상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교육의 문제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온 것이다. 심성교육의 중요성도 수차례 강조 돼 왔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장은 아직 혼돈 속에 있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와 학부모들의 정도를 넘은 교육열이 청소년들을 방황의 길로 내몰고 있다.

학교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현주소도 냉정히 점검돼야 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하나의 맥을 이루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 풍토는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범죄들은 부처님이 그토록 간절히 일러주신 탐·진·치의 삼독을 극복하지 못한데서 발생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제시한 바른 삶의 길로 나가야 한다.

불살생을 강조한 오계와, 육바라밀의 실천, 그리고 팔정도의 실천을 위해 불교계는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도 필요하다. 특히 오계의 실천은 불자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며 사회적으로도 오계 실천이 확산되어야 할 인간 삶의 기본덕목인 것이다.

생명경시 풍조는 불교가 제시하는 동체대비 정신의 부재를 극복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불교계에 생명공양운동이나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우리 사회의 극악한 범죄들은 인간방생과 같은 교계의 건전한 활동 영역이 넓어져 감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생명 경시」 누구 책임인가

사 설

우리는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존속살인과 상해, 어린이 유괴살인, 화풀이 살인, 보복성 살인 및 폭행 등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된 이래 우리 민족의 원형적 정서인 인간을 신성시하는 정서는 인간을 부처와 동일한 존재로 존중하는 사회 기풍을 형성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의 존재도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적 가르침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지 무생물체에 이르는 광범위한 자애심을 우리 민족의 정서에 함양시켜 왔다.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을 부처와 동일한 존재로 존중했다. 이러한 사상은 근대에 이르러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한다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민족 전래의 원형적 정서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죽이고, 버리고, 폭행하더라도 죄악감이 없을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이유와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몇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해방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된 서구 모방의 교육형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구의 절대주의 사고방식이나 개체적 인간관을 홍포하기 위해 매진한 것이 현대 한국교육의 「공로」라면 인성교육이나 더불어 삶의 미덕을 앙양시키지 못한 「공로」도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종교인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학교라는 제도권의 교육을 벗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종교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기능이나 외형적 교세확장에만 주력했다. 특히 70년대의 고도성장과 함께 서구 자본주의의 선전기관 내지 배금주의사상 전파의 전초병 역할을 해 왔다. 종교가 지닌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세속적 영합에 몰두한 것이다. 셋째는 정치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한국의 정치인들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인간이 존중받고 살 수 있도록 도덕정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근대정치사를 회고해 볼 때 배금주의 사상이나 살인, 폭력 등 인명경시 풍조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무시되거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목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민족은 여타 민족이 선망하는 국가를 만들었다. 이제 마음놓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제언한다. 이것은 상대적 가치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총체적인 노력에서 가능성이 나타나리라 본다. 특히 종교인이나 교육자, 정치인들은 바람직한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서서 민족의 장래를 희망차게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베푸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

세상을 경악케 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이토록 잔악해졌는지, 한국사회의 현주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돼 있다.

단군신화를 보더라도 하늘님의 아들인 환웅이 동물인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시조를 낳고 있다. 이는 인간의 성품에는 신성(神性)과 수성(獸性)이 공존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신성의 함양과 수성의 억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수양이며 타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교육이다.

인간의 전세와 미래를 믿는다면 현세의 물연이나 육욕은 마땅히 억제되고 그를 수양을 통해 교양인 즉, 인자들에 의한 선한 사회가 되겠지만, 오늘날 합리주의가 인간을 지배하고 이념보다는 과학문명이 돋보이는 사회에서는 자연히 신앙심 조차도 현세와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물적 풍요에 의한 행복 즉 금전의 획득과 유지로 보상됨으로 관명되기 때문에 또 출생과 사망이 과학적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증명됨으로써 육체를 운용하는 정신은 육체적 복합기능 운동에 의하여 시작했다가 정지함으로써 끝난다는 믿음이 팽배하고 말았다. 즉 정신은 육체의 부수물로 여김으로써 전통적인 충효사상이나 경노사상같은 인간 가치관이 쓰레기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인간을 목적 자체로 보고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봉사시킬 수도 있다는 도덕율은 사라지고 인간을 수단으로 보고 타인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치율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종교도 전세관이나 내세관을 버리고 합리주의에 의거하여 현세만을 강조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한 외형적 윤리 표출과 현실적 성공만을 신의 축복으로 강조함으로써 종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치도 그 지도자나 집권층이 도덕성을 상실함으로써 정상배들이 되어 삼척동자도 불신하게 되고 경제도 인스턴트적 충족에 맞추기 위한 금전 추구에 문화도 눈앞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즉흥적인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마당에 결국 인간 자체를 자기를 위한 여러가지 환경적 존재물 이상으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타인의 생명을 앗아 버리고 그 시신은 쓰레기처럼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재가자 즉, 가정에 머물러 있는 불자에게 열가지 선업을 강조하신 바 있다. 몸으로 저지르는 살인·간음·도둑질을 못하게 하고, 입으로 저지르는 거짓말·악담·두가지 말·희롱하는 말을 못하게 하고, 탐욕과 시기·질투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을 멀리하라고 하셨다.

이를 따르는 동시에 재물을 베풀고(재시) 진리를 베풀고(법시) 평화를 베푼다면(무외시) 이 사회는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점 수

(경북대 교수, 국민윤리교육학)

현대만평

박 구 원

세상이 왜 이렇게…

◇「현대불교」창간 리셉션에서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는 김광삼 발행인,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함마음선원장, 김종필 민자당 대표, 이민섭 문체부장관(왼쪽부터).

「현대불교」창간 행사 대성황

정·재·언론·문화계 인사대거 참여

2천5백여 불자, 힘찬 첫걸음 축하

「현대불교」 창간기념 행사가 지난 14일 오후 6시 하야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교계, 정계, 재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인사등 2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이경재 공보처차관등 정부 요인과 김종필 민자당 대표, 김상현 민주당고문, 이종찬 새한국당대표, 곽정출 민자당의원등 현직의원과 채문식 전 국회의장, 고흥문 전국회부의장,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등 정계 원로, 중진인사, 유종렬 효성중공업사장, 최시호 (주)선경부사장, 김재봉 율산그룹회장, 한신혁 동부산업사장등 재계 인사들이 참가해 「현대불교」의 창간을 축하했다. 또 지하 조계종 총무원부원장,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등 각종단 대표와 최호진 매일경제신문고문, 박용정 한국경제신문사장,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채규희 에너지경제신문사장등 언론계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문화예술계에서는 여초 김응현선생과 김종규 삼성출판사사장 등이 함께 했다.

신문개요 설명과 인사말, 축사, 여흥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현대불교」 명예회장 대행스님은 "이제 한국불교는 세계로 퍼져나갈 때"라고 강조하고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부원장 지하스님과 이기영박사는 축사를 통해 "현대불교의 창간을 불교계의 또다른 힘을 축적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여흥시간은 한마음선원 합창단과 이미배, 김태곤씨의 노래공양으로 장식됐다.

참석해 주신 분

교계

△정회수 화엄종종회의장 △법등스님 조계종개혁회의법사분과위원장 △지원스님 삼보사주지 △권오성 예비역군승단 회장 △자우스님 동국학원재단사무국장 △임봉준 국방부군종실장 △홍파스님 관음종총무원장 △김형근 불지사사장 △박동기 WFB한국지회장 △제원스님 창평사주지 △김재일 통산반야회장 △지하스님 조계종총무원부원장 △김은세 광제원대표 △청화스님 실천승가회회장 △각현스님 연꽃마을이사장 △박형진 종단협사무국장 △원행스님 자광사주지 △일정 진각종총무부장 △성호 진각종재무부장 △회정 진각종문화국장 △정휴스님 조계종 개혁회의의원 △여연스님 조계종개혁회의사무처장 △영담스님 석왕사주지 △권오현 불교진흥원사무국장 △운역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도원스님 천태종총무부장 △운제스님 전 태고종총무원장 △공우스님 목동청소년회관관장 △혜장 비구니정혜도량총무부장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운영위원장 △진송님 불자가수회회장 △원기스님 한마음선단식원원장 △이루스님 청주관음사주지 △혜거스님 금강선원장

정·관계

△해기화 중국대사관 공사 △심지영 중국대사관 △이종찬 새한국당대표 △김용규 전 새한국당대표 △김종필 민자당대표 △곽정출 민자당의원 △김상현 민주당고문 △서석재 민자당당무위원 △정대철 민주당고문 △이민섭 문체부장관 △이경재 공보처차관 △박범진 민자당대변인 △임덕규 전 의원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 △이중재 민자당고문 △염길정 전 의원 △김의재 서울시교육본부장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인재 민자당의원 △채문식 전 국회의장 △고흥문 전 국회부의장

3면에 계속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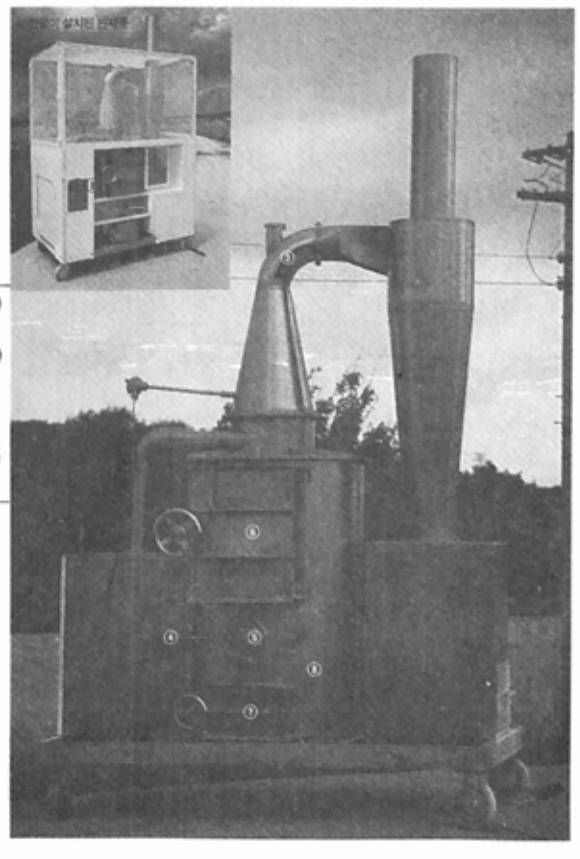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붙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 - 8644, 의장특허출원 94 - 8470, 8471, 8472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 - 1
전화 : (0344) 64 - 7236, 62 - 3488
팩스 : (0344) 62 - 7012